

# 實記의 文學的 特徵

이 채 연\*

## 목 차

I. 머리말	2. 소재 선택방식과 짜임새
II. 실기의 저술배경과 창작동인	3. 구성과 주제구축 양상
III. 실기의 성격과 범위	4. 詩文의 혼효
IV. 실기문학의 서술구조	V. 실기문학의 자리매김
1. 체험의 포착과 문학적 진실	

## I. 머리말

實記를 문학연구의 장에서 논의하고자 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실기를 문학성을 가진 작품군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문집의 성격을 띤 글의 表題적 의미로 이해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전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실기라는 용어는 다른 장르의 글과 변별되면서 나름의 독자적 성격을 가진 역사적 장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런 류의 글들이 우리 문학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임란부터이다.

임란을 계기로 하여 많은 실기가 저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충격에서 찾을 수 있다. 임진왜란은 조선이 개국한 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국가적 위기로, 민족적·개인적인 수난이기도 했기 때

---

\* 부산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문에 그 충격은 정치·사회적인 것은 물론 문화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것도 평소 섬나라의 야만인 정도로밖에 인식하지 않았던 일본에 의해 당한 침략이라는 점에서 민족적 위신과 자존심은 상당기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쟁기간 중 일본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잔혹행위는 민족적 복수심을 고조시켰고, 참상에 대한 고발은 어떤 식으로든 증언될 수밖에 없었다. 그 증언은 말과 글을 통해서 구체화되었고, 오랜 세월동안 기억 속에 자리하면서 문학의 창작동인으로서 자리잡았다.

그런데, 평화시의 규범적인 문장이 아닌 문학형태, 소위 사실지향적 성격이 강한 실기가 많이 저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기는 기존의 글과는 내용 뿐만 아니라 표현에 있어서도 많이 다른 것이다. 실기는 자신이 겪은 일의 실상을 전하면서 술화하는 방식으로 쓰여졌는데 전란의 경과나 그뒤에 일어난 일에 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참고자료를 모으고, 참상을 절실하게 나타내면서 개탄하는 마음을 설명이 아닌 묘사의 방법으로 형상화하였다.<sup>1)</sup> 이 때문에 실기는 사실에 바탕을 둔 한 개인의 절박하고도 처절한 경험세계를 있는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순발력 있게 문학적인 형상화가 될 수 있었다.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실기의 대부분이 일기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상상적문학을 능가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결국 이러한 실기는 조선조의 문학장르의 다양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르의 다양화는 결국 과거의 제한적 형식과 표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물의 범람을 의미한다. 전통적 외형을 유지한 채 벽찬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형식과 내용의 부조화와 혼란이 야기되었다. 여기서 얻은 새로운 표현의 수단은 장르의 다양화 내지 변화현상으로 나타났다.<sup>2)</sup>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3판), 지식산업사, 1994, 12쪽.

2) 소재영, 「임진왜란 전후문학의 특색」, 《한국문학사 서술의 문제제》, 단국대 출판부, 1993, 263쪽.

## II. 실기의 저술배경과 창작동인

실기는 실존 인물이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을 기록·표현한 것으로 역사와 같은 사실지향적인 서술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성보다도 감성에 호소하는 생체험 중심의 기록문학이라 할 수 있다. 즉, 실기는 戰爭이나 亂, 사회적 의미가 있는 사건과 같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상황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반드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요와 작가 개인의 경험세계가 어울어져 있다. 이른바 역사와 유사한 성격을 띤 사실적 체험담인 것이다. 그러나 실기는 正史와는 달리 작자 자신의 주변적 사실과 개인적인 생활현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사에서의 같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나 소재는 별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혹 다루더라도 보는 안목이 크게 제약되어 있어 사실 전달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수밖에 없다.<sup>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정서적 풍부함, 상황묘사의 박진감 등은 소설과 같은 가공의 세계보다도 훨씬 긴장감있게 서술되어 있다.

그럼 왜 이러한 실기류가 임란과 같은 전쟁 상황 속에서 저작될 수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사선에서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실기 저작의 계기가 되었던 임란을 배경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전쟁의 과정에서 겪은 처참한 체험을 잊지말고 기억해야겠다는 작가의 기록정신과 그에 따른 역사의식이 이러한 실기류를 만들 수 있게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당시 쓰여진 실기들은 양반계층에 의해서 이루어진 저술이 대부분인데, 이는 그들이 문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식자계층이란 점에도 이유가 있겠으나 일차적으로는 그들의 기록정신에 연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역사의식이라 할지라도, 관념이나 사상으로 구축되기에 앞서 우선 그 충격을 보존하여, 남에게 생생히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전쟁은 윤리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극한 상황을 야기시킨다. 전쟁은 장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극도의 공포감과, 생사가 우연에 의해서

3) 황패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일지사, 1992, 11쪽.

결정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육체적 긴장과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과 동물이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하거나 듣고서도 간과한다는 것은 승문풍조에 젖어 있던 조선조 사대부들의 기본 정서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시체는 쌓여 들에 가득하고 매장된 것은 얼마 없었다. 아비가 자식을 팔고 남편이 아내를 팔았으며,癸巳年(1593) 봄에 이르러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고 시체를 조개어 앞을 다투어 물어뜯으며, 골육끼리도 또한 서로 죽이는 자도 있었으니, 우리 동방에 변란이 있는 후로 참혹하기 오늘과 같은 때가 없었다.<sup>4)</sup>

그러나 안락이 모두 기근에 허덕이고 양식을 운반하기도 힘든데다가 노약은 병들어 누웠고, 젊은 장정들은 모두 도둑이 되고 만 형편이었다. 더욱이 질병이 심해서 쓰러져 죽는 자 그 수를 알 수 없었으며, 심지어는 부자와 부부가 서로 뜯어먹기까지 이르렀다. 노천에 뿔구는 뼈만 짚단같이 늘어져 있었다.<sup>5)</sup>

앞 글은 尹國馨의 《聞韶漫錄》이고, 뒷글은 柳成龍의 《懲愆錄》의 일부이다. 두 부분 다 임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것은 생각하기만 해도 소름끼치는 일이다. 소설과 같은 가공의 세계에서조차도 ‘人肉食’에 관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것은 흔치 않다. 제의적 행위나 정신이상자의 소행이 아니고서는 거의 생각할 수조차도 없는 처참하고 잔혹한 행위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시화되었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은 가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하물며 골육끼리도 오로지 생존을 위해 서로 잡아먹었다고 하니, 인간의 윤리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취할 행동은 무엇일까. 사람에 따라 그 반응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한 나라의 정신적 지주를 이루고 있는 사대부 계층이라면 단순히 기억 속에 묻어두고자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며, 인간이 생존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잔인함의 정도는 얼마만큼인지, 그런 와중에서 취해야 하는 유한자로서의 태도는 어떤 것인지와 같은 것을, 보고 들은대로

4) 尹國馨, <聞韶漫錄>, 《국역 대동야승》 권11, 민족문화추진회, 42쪽.

5) 柳成龍, 《懲愆錄》 권2 (이민수 역, 을유문고 33), 을유문화사, 1970, 188쪽.

남기고 싶었을 것이다. 이는 식자층의 본능적 감각에 가까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감각을 구체화시키는데는 특별한 문필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기술하기만 해도 그것이 가지는 극적 형상미는 인위적인 세련미를 가한 것보다도 훨씬 감동적일 수가 있다. 그것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몸으로 느낀 생체험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병 양란을 배경으로 한 실기문학 작품들이 전통적인 규범문장에서 벗어난 문장으로 씌어지게 된 것이다.

딜타이는 생체험의 문학적 가치를 밝힌 바 있다. 그의 견해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속에서 일어나는 문학적 행위의 주요 해명 근거로 받아들여진다.

生體驗은 사상이나 관념으로 전이될 수는 없다. 생체험은 체험 그 자체의 성격 및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수용되고 그 전달의 양상도 결정된다. 실제 경험을 통해 획득한 정조는 체험 당사자의 모든 직관을 형성한다. 그는 기쁨과 고통 사이를 왕래하는 강한 삶의 감각을 통하여 인간 실존의 상징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sup>6)</sup>

고 했다. 딜타이의 말은 곧 체험을 보존하는 것이 자기 실존을 확인받는 행위라는 것이다. 체험의 보존행위 중 가장 적극적인 형태가 문자를 통한 기록이라고 봤을 때, 체험현장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특별한 창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체험의 성격에 따라서 삶의 미적감각 내지는 생명력을 표현하는 문학성을 지닐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학적 형상화는 체험을 통해서 얻은 삶의 감각을 보존하고 강화시키며, 또 일깨워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만약 그 체험이 전쟁과 같이 생사가 달려있는 극단적인 형태의 것이라면, 그 충격의 강도에 비례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충동 또한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때 실제 체험을 통한 정조는 상상력에 의해 새로운 문학적 질서로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겠으나, 직관에 의해 형성된 표상을 연상력에 의해 단순히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sup>7)</sup>

6) Wilhelm Dilthey, 《Poetry and Experience》(김명옥 외 옮김, 《文學과 體驗》, 우리문학사, 1991), 43-44쪽 참조.

7) Wilhelm Dilthey, 《Das Erlebnis und Die Dichtung》(韓逸變 譯, 《體驗과 文學》, 中央日報·東洋放送, 1979.), 18-20쪽 참조.

전자와 같은 상상력이 가미된 체험은 추억과 기억을 통해서 보존된 표상을 작가의 자유로운 삶의 방식에 따라 변형시킨 것이기 때문에 원래의 생체험 그 자체는 아니다. 이에 비해 후자의 경우는 전자에 비해서 체험의 실제적인 모습이 보다 많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8)</sup>

당시 사람들은 우선 자신들이 경험한 전쟁의 참상과 체험의 처절성에 대해 일차적으로 기록·보존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기 때문에, 굳이 상상력을 통한 인위적인 허구적 형상화를 시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허구보다는 사실에 충실한 묘사를 통해 진실 그 자체의 모습에 접근하려 했을 것이고, 그 결과 실기와 같은 기록방식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실기들이 체험 그 당시에나, 그 기억이 소멸되지 않은 시점에서 저작된 것인데 이는 바로 상상력에 바탕을 둔 기록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록정신은 사실의 전달과 현장의 보존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록자의 역사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의식은 철저한 현실인식을 통한 스스로의 자각과, 또한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과 역사는 긴밀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딜타이는 문학과 역사의 관계를

모든 진정한 문학은 역사적 사실 위에 존재한다. 사람을 관찰하는 특별한 방식, 지속적인 인물 유형들, 인간 행위의 복잡성, 한 시대 및 국가의 도덕적 감정에 따른 해결방식, 그리고 주어진 시대의 상징체계 등은 문학이 다루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이다. 삶을 재현하는 이러한 문학의 표현방식의 기법성이 모두 역사적 사건을 질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은 역사적 바탕에 가장 충실한 장르가 되는 셈이다.<sup>9)</sup>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소재 선택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재현하는 기법성까지 문학과 역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작가의 개인적인 상상력에 의해 창조된 픽션문학에 비해, 사실 그 자체의 진실을 중시하

8) 이에 대해서는 崔載瑞(《文學原論》, 春潮社, 1957, 173-176쪽.)와 미켈 뒤프린(金采賢 譯, 《미적체험의 현상학》上, 이화여대 출판부, 1991, 303-354쪽) 참조.

9) Wilhelm Dilthey, 《Poetry and Experience》(김명옥 외 옮김, 《文學과 體驗》, 우리문화사, 1991), 41쪽.

는 실기는 문학의 역사적 진실 그 자체의 본질에 가장 밀접히 접근해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실기는 역사와 개인적 감정을 결합시킨 것이며, 현실의 바탕위에서 문학의 보편성과 영원성을 지향하는 문학양식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실기 저작의 또 하나의 의도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세인에 대한 경계 내지는 감계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기는 특이한 인간의 체험 중에서 확인 가능한 대상만을 중심 소재로 하여, 그 사실을 가능한 한 실상 그대로 전달하려는 서술방식을 지향하며, 그 목적은 효용성에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가) 懲愆錄이란 무엇인가. 壬辰亂 뒤의 일을 기록한 글이다. 여기서 간혹 亂 이전의 일까지 섞여 있는 것은 亂의 발단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壬辰의禍야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십 여일 동안에 세 도읍이 함락되었고 온 나라가 모두 무너졌다. 이로 인하여 임금은 마침내 파천까지 하였다. 그러고도 오늘날이 있다는 것은 진정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詩經에 이런 말이 있다. “내 지년간 일을 懲戒하고 뒷근심이 있을까 삼가노라.” 이것이 바로 내가 이 懲愆錄을 쓰는 연유라 하겠다…… 이에 한가로운 틈을 타서 지난 날에 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중에서 壬辰年으로부터 戊戌年에 이르기까지의 몇몇가지 일을 기록한다.<sup>10)</sup>

나) 이제 임진년의 쓰러린 기억은 어린 시절의 옛이야기가 되었다.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동생들도 다 죽었으며 내 혼자 살아서 병이 들어 누어있어 어느 때 죽을는지 모르니 후손들에게 임진란의 아픔을 되새기게 하고 내가 그리 신고하여 죽다가 살아났음을 전하기 위하여 일가 사람이라도 이야기삼아 보도록 기록하여 둔다.<sup>11)</sup>

다) 어허 슬프다. 나는 丁酉年(1597) 가을 8월 12일에 적병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늙은이와 어린애를 이끌고 또는 피난 집을 이고 지고 집을 떠났다. 노인과 어린애는 힘이 없어 넘어지고 길에서 멈춰서러기에 부득이 배를 타고 떠돌다가 9월 27일에 변을 당했으니 망극함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 戊戌年(1598) 11월에 이르러 다행히 하늘의 도움을 입어서 倭賊들이 감동하여 비로소 조국에 돌아오는 한 가닥 길을 얻었다…… 집에 이르니 돌아가신 어머니와 죽은 아내는 나무로 만든 神主 한 조각 뿐이었다. 땅을 두드리고 하늘에 울부짖어도 미치지 않았다. 다행히 아버님을 봉양할

10) 柳成龍, 『懲愆錄』 自序(울유문고, 1970).

11) 柳 軫, <임진록>(홍재휴 해제, <국문학연구> 7집, 효성여대 국문과, 1983.).

수 있게 되고 또 어린 자식들을 만나니, 아득한 연기와 안개 속에 떨어진 사람마냥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 눈물만 줄줄 흘렸다. 만경풍도 속을 오고 갔던 괴롭고 어두웠던 정황과 만리타국 호랑이 굴에서 열 번 살고 아홉 번 죽었던 자취며, 만리 타국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슬픔과 기쁨이 뒤범벅이 된 심정을 적고자 하면 하나 둘이 아니다. 특별히 그 대상을 들어 적으니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기쁘게 할 일이 아니므로 서투르고 졸렬함을 관계하지 않고 무뎠 듣고 보았던 것을 간략하게 적었다. 庚戌年 겨울에 우연히 책상 속을 뒤져보니 적의 소굴에서 적었던 것이 있었으나 차례가 없고 혼잡하였으므로 다시 고쳐 정서를 했으니 후손들이 보고 느끼도록 당부한다.

12)

가)는 柳成龍의 <懲愆錄>에 나오는 글이다. 유성룡은 개전부터 종전까지 임금을 보좌하며 전쟁의 종결을 위해 힘썼던 인물이다. 왕을 지군에서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힘이 없는 왕실과 그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깊이 절감했던 인물이다. 그의 <징비록>은 임진왜란의 시달과 그 과정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잘 조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쟁 발생의 원인과 그 대응력의 미비점 등 여러 부분에서 전시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징비록>은 생체험의 기록인 동시에, 그 처절한 체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것이다. “내 지년간 일을 懲戒하고 뒷근심이 있을까 삼가노라” 라고 한 부분은 이 글의 목적이 스스로를 警戒하고 후대인들을 鑑戒시키기 위한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는 임란과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선대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나를 자신의 체험기록을 통해 똑똑히 배우라는 의미인 것이다.

나)는 柳衿이 한글로 쓴 피란실기라 할 수 있는 <임진록>의 일부이다. 유진은 유성룡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11살에 임란을 당하여 경기도, 강원도, 평안도 등지로 피란하였다. 그는 비록 유성룡의 아들이었으나 부친이 왕을 호종하여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부득이 매형 이문형의 손에 이끌려 피란을 갈 수밖에 없었다. <임진록>은 그때의 체험 중 저자가 직접 겪은 11개월 간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유진은 말년에 이르러 지난 일들을 회상하면서 가장 처절했던 유년시절의 참혹한 경험을 떠올리고는, 이를 단지 기억 속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기록해둠으로

12) 鄭慶得, 『萬死錄』, 卷1, 自敘: 湖山公宗中所藏本.

써 후세인들에게 과거의 상흔을 알리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의도는 개인적 신변잡기를 술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되살림으로써 미래의 교훈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는 鄭慶得의 『萬死錄』 自敘 부분이다. 정경득은 이 글에서 일본에 포로로 잡혀가 고생한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이를 알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기에 후손들만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編次한다고 그 동기를 밝히고 있다. 자기들의 직계 후손에게만 알려졌다는 표현은 자신의 글이 남에게 드러내어 놓을 정도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저술 관습상 겸양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와 같은 기구한 체험을 겪어보지 못한 모든 이에게 알리고 싶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글을 저술하고자 한 본래의 뜻은 자기 운명의 기구함을 타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그 처지를 위무받고자 하는 측면과, 체험의 실상을 알려줌으로써 불행을 다시는 초래케 하지 말라는 鑑戒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셋째, 전쟁중에 겪게된 체험을 잊지 않고 작품화하려 했을 경우, 이를 문학적으로 조탁할 수 있는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도 픽션문학이 아닌 실기가 많이 저술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실기들은 일기형식으로 짜여진 것이 많다. 이러한 저술 방식은 매일 매일의 체험을 보존하고자 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으나, 소설과 같이 사건의 시말이 전체적으로 조망될 수 있는 한편의 작품으로 완성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데도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sup>13)</sup> 때문에 실기에서는 작가가 경험한 미시적 사건이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을 따름이고, 그 하나 하나의 사건이 작가 경험세계를 구축해 전쟁 속의 한 개인의 정서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실기로 통칭될 수 있는 독특한 문학양식이 임란을 배경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저작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

13) 현존 실기들이 책의 형식으로 완결된 시점은 대부분 전쟁이 끝난 뒤이지만, 실제 씌어진 시점은 전쟁 당시이다. 전쟁 중에 두서없이 적은 기록들을 전쟁이 끝난 후 집고 고친 것이기 때문에 실기문학의 저술시점은 전쟁 당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된다.

비슷한 이유로 해서 병자호란 때 석지영의 <남한해위록>, 남업의 <병자일기>, 남이웅의 <병자일기> 그리고 <산성일기>와 같은 실기저작이 가능했을 것이고, 홍경래란을 배경으로 해서는 <진중일기>, <안릉일기>, <순절록>, <서정일기>와 같은 실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밖에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과 같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궁중비사를 배경으로 해서도 실기가 저작되었다.

### Ⅲ. 실기의 성격과 범위

문학연구에 있어서 실기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져 왔다. 이는 표현론적 가치보다는 구조론적 치밀성을 중시하는 현대 문예미학의 영향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실기는 다른 문학작품(상상적 문학)과는 달리 실제 있었던 사실을 전달하는 단순한 기록의 차원으로 이해될 뿐이다. 사실지향의 평면적인 서술, 구조적 긴밀성의 결여, 작품 내 공존하는 장르혼효와 같은 실기의 제반 특징들은 조잡한 수준의 문학이라는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실기에 대한 문학적 관심 내지는 접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기록한 글'이란 字意的인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문학 연구자의 양적 증대와 연구대상 범위가 확산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실기가 문학연구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글인가 하는 문제와, 그렇다면 과연 실기라는 용어가 문학적 용어로서 얼마만큼의 타당성을 갖는가에 대한 것조차도 정확하게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기의 구체적 성격과 함께 이에 해당되는 작품의 범위가 엄밀히 규정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와 토의의 과정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실기가 어떤

성격의 글인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기에 대한 관심은 소위 궁중문학이라고 일컬어지는 <계축일기>, <인현 왕후전>, <한중록>과 같은 독특한 형태의 문학을 분석하고 그 위치를 자리 매김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위의 작품들은 우리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복합적 성격때문에 특정 장르에 쉽게 귀속 시키기 힘든 애매한 성격을 지닌 것들이다. 논자들의 편의에 따라 궁중소설이란 말로 지칭하기도 했지만, 이에 반대해 독자적 성격을 부여하려는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다양한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 조운제는 궁중기사문이라 했고, 신정숙·김일근은 수기문학, 김동욱은 수필, 류기룡은 기록문학, 김용덕은 실기형 전기소설이라 했다. 이들의 논의는 소위 궁중문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소설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어의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가 있다.<sup>14)</sup>

실기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김용숙과 조동일의 연구에 의해서이다. 김용숙은 위의 작품들을 궁중실기<sup>15)</sup>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 “실기라 함은 사실의 기록이란 뜻이다. 사실 자체는 문학이 될 수 없지만 이것이 객관적 사실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쓰는 이의 자세에 따라 문학성이 게재될 때, 이는 문학의 범주에 든다. 그 자세란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작자의 인생관·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리하여 실기문학이란 한마디로 사실의 기록에서 출발한 문학이란 뜻이 된다”<sup>16)</sup> 라 하여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실기라는 용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조동일은 ‘민족수난에 대응한 문학’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란을 겪으면서 기록된 각계 각층의 수많은 기록과 증언은 설명보다는 묘사 중심의 글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존의 규범적인 문장과는 다른 것이라 했다. 그는 이를 실기문학이라 명명하면서 그 범위를 유성룡의 <징비록>과 같이

14) 조운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63, 신정숙, 「궁중에서 성립된 수기문학의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63, 김일근, 「수기문학의 성립」, 《문학사상》 1972년 12월호, 김동욱,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70., 류기룡, 《한국기록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78., 김용덕, 《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7.

15) 김용숙, 《한국여류문학의 연구》, 숙명여대 출판부, 1978.

16) 김용숙, 「왕조사회와 실기문학」, 《한국문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2, 393쪽.

체험당사자가 직접 기록한 글은 물론 <김충장공유사>, <망우당선생집>과 같이 後代人에 의해서 편찬된 것, 조정남의 <난중잡록>과 같이 야사의 성격을 띤 것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켰다.<sup>17)</sup> 두 분의 연구는 실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문학연구의 주변에 머물거나 사료적 가치만을 인정받던 글들을 본격적인 문학연구 대상으로 상정했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실기의 문학성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와, 후인들에 의해 기록된 실기 및 역사 서술방식에 경사된 실기를 체험당사자가 직접 쓴 실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는 등 실기 본질에 관한 장르적 성격규명과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접근을 보지 못했다.

그밖에 실기의 성격과 문학적 가치부여에 대한 성과로 김태준, 소재영, 황패강 등의 연구도 빼놓을 수 없다. 김태준은 《임진란과 조선문화의 동점》<sup>18)</sup>에서 임진왜란과 문화·문학적 현상을 다루는 자리에서 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강항의 <간양록>과 같은 포로기록물과 경섭의 <해사록>과 같은 통신사일기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조명한 바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작물을 두고 임란의 직접 혹은 간접체험을 형상화하여 전에 없었던 전경문학인 실기문학이 나타났다.<sup>19)</sup>고 하여 실기문학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기문학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통신사일기도 실기의 범주에 귀속<sup>20)</sup>시키고 있어 실기의 범위 설정에는 모호함이 많다.

소재영은 임란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 주목하면서 <금계일기>, <간양록>, <월봉해상록> 등과 같은 포로일기를 실기류로 보고, 이들 작품이 갖는 소위 왕환모티프의 소설적 수용양상을 고찰한 바 있다.<sup>21)</sup> 그는 위 작품들이 포로

17)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권3, 지식산업사, 1984, 7-40쪽.

18) 김태준, 《임진란과 조선문화의 동점》, 한국연구원, 1977.

19)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체험의 실기문학」,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20) 김태준, 「임진왜란과 한·일간의 문화적 대응」, 《아시아문화》 제 8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2.

21) 소재영, 「임란과 피로일기」, 《임병양란과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소재영, 「임란피로들의 해외체험」, 《여행과 체험의 문학》, 민족문화추진회, 1985.

생활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소재적 특이성이 갖는 문학적 가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 소설에서 지리적 공간의식의 확대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실기류는 역사적 기록이 놓쳐버린 시각이라든지, 당시인들의 비판적 실체를 잘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역사적 또는 문학적인 자료가 된다고 하였다.<sup>22)</sup>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실기를 기록물의 차원에서 이해할 뿐, 독자적인 성격 부여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황패강은 《임진왜란과 실기문학》<sup>23)</sup>에서 실기는 正史와는 달리 작자 자신의 주변적 사실과 개인적인 생활현실을 다루는 것으로 자신의 체험을 직접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재현한다는 데 그 본령이 있기 때문에 실기에서 다루는 사건은 다분히 개별적 구체성을 갖게 되며, 그 전달은 박진감 있고 정감에 호소하는 면이 강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실기의 문학적 가치는 역사기록이 주지 못하는 정감적인 호소, 인간성의 발견, 감동적인 정황서술, 진실 추구 등 비록 전쟁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되는 인간성의 존귀함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황패강의 주장이 갖는 핵심은 실기를 역사와 차별화시키는데 있으며, 역사와 구별되는 실기의 특징은 이성적 판단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느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실기의 범위를 작가가 직접 체험하여 서술한 작품에 한하고, 후손이나 유지가 쓴 간접체험의 기록류와 공식적인 실기류는 제외시켰다. 황패강의 이러한 지적은 논자에 따라서 실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러지도 않는 작품들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실기(문학)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논의가 정은임과 이채연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정은임은 「궁중실기문학연구」<sup>24)</sup>에서 지금

22) 소재영, <임진왜란을 전후한 동아시아의 사회문화 동태>, 《아시아문화》 8호,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2)란 주제의 포럼에서 김태준교수에 발표에 대한 질의.

23) 황패강, 《임진왜란과 실기문학》, 일지사, 1992, 11-13쪽.

24) 정은임, 「궁중실기문학연구」-장르이론과 수용미학적 견지에서-, 숙명여대 박사논문, 1988.

것 장르규정에 모호함이 있었던 궁중문학을 실기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실기문학의 개념을 “종래의 대표적 산문양식인 傳, 記, 錄 등을 이용하여 역사상 실존인물이 겪은 체험의 실상을 글로 기록하고 표현한 것”이라 규정했다. 나아가 실기문학은 전란이나 이에 상응하는 역사적 대사건 이후에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써 체험을 술회하고 전하는 데서 생겨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은임이 세운 실기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것이어서 <난중일기>, <징비록>, <임진록>과 같은 것은 물론, <남이장군실기>, <세종대왕실기> 등도 소위 ‘실기류’라 하여 이에 포함시켰다. 여기서 후자의 경우는 비록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을 대상으로 ‘00실기’라고 명명하고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구활자본 소설이지 실기는 아니다. 또한 실기에 傳의 문체가 포함되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실기에 대한 범위설정은 지나치게 확장된 느낌이 있다.

이채연<sup>25)</sup>은 실기 저술이 전쟁이나 역사적 사건의 경험세대에 의해 집중적으로 저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체험의 문학적 형상화란 관점에서 1) 작가의 기록정신과 역사의식, 2) 후세인들에 대한 경계내지는 감계의 의도 3) 소재 선택에서 창작까지의 시간적 거리와 관련지워 밝히고자 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실기가 왜 문학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서술구조론적인 입장에서 구체화시켰다. 그 결과 실기는 사실 그 자체의 기록인 역사와, 사실의 상상적 대치물인 역사소설과는 그 서술방법에 있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가 바로 실기문학만의 독자성이라 했다. 나아가 이제 실기문학도 하나의 독립된 문학장르로 인정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실기문학은 실존 인물이 전쟁이나 亂,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겪은 체험의 실상을 記, 錄과 같은 문체로 기록·표현한 것으로 역사와 같은 사실지향적인 서술태도를 보이면서도 이성보다도 감성에 호소하는 생체험 중심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실기문학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어느정도 진척되었다 하더라도 작

정은임, 《궁중문학연구》, 솔터, 1993.

25) 이채연, 「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13집, 1992.

이채연, 「임진왜란 포로 실기문학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1993.

품의 범위 설정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정립되어 있지 않다. 실기는 그 장르적 속성상 역사 혹은 상상적 문학과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실기라 할지라도 문학작품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실기문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기문학이 아닌 것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실기'와 '실기문학'에 대한 변별성이 생기게 되고, 실기문학 중에서도 어떤 성격의 글이 진정한 문학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가 밝혀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기의 범위에 대한 가설의 틀을 세워 보고자 한다.

실기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실제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을 한 후 개별 작품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작품의 이름에 '00실기'와 같이 비록 실기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지만 글의 특성상 실기로 볼 수 없는 작품이 많이 있다. 이런 글들의 처리문제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 경우는 작품의 이름에 '00실기'라는 명칭이 붙은 것으로 지금껏 소위 '실기류'<sup>26)</sup> 라는 용어로 불려지던 작품이다. 이런 글들 중에는 <鶴峯實記>, <梅軒實記>, <慕夏堂實記>, <息城君實記>, <後知堂實記>, <林忠愍公實記> 처럼 실제 실기<sup>27)</sup>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홍경래실기>, <곽재우실기>, <김용서실기>, <가등청정실기>, <남이장군실기>, <세종대왕실기> 처럼 실기 아닌 것들도 있다. 후자와 같은 것은 비록 '00실기'라고 표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소설이지 실기는 아니다. 이들 소설은 대상인물에 대한 사실적 실감과 독자대중에 대한 진실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누구누구에 대한 실제적 기록'이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기란 명칭을 사용했을 뿐 실제로는 傳記小說의 전형적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다.<sup>28)</sup> 따라서 이들 작품은 실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 실기형태로 찬술된 것 중에서 자세히 분석해보면 문학 기술방법이

26) 정은임, 앞의 논문, 7-8쪽.

27) 이들 저작물은 직접 체험당사자에 의해서 서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실기에 포함되나 '문학성을 지닌 실기문학'으로는 볼 수 없다.

28) 김용덕(《한국전기문학론》, 민족문화사, 1987)은 이를 '실기형 전기소설'이라 명명하고 있다.

아닌 역사 기술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개인적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글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글로 趙慶男의 <亂中雜錄>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임란에 대한 일종의 야사적 성격을 띤 것으로 사건에 대한 정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가지 고증서적을 나열하거나 발췌하여 역사서처럼 사건의 경위 설명에 주목적을 두고 쓰여졌다. 그러면서도 찬술자가 그날 그날의 일을 적으면서 개인의 정감에 찬 심회를 보여주는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야사로 단정지을 수만은 없고, 일종에 문학과 역사의 중간지대에 위치하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글들은 실기는 실기이되 역사실기라 부르기로 한다. <난중잡록>과 유사한 글로 申昶의 <再造藩邦誌>와 安邦俊의 <隱峰野史別錄>과 같은 글이 있으나 실기보다는 본격적인 야사나 일종의 私撰史書의<sup>29)</sup> 성격을 띠고 있어 실기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두 경우를 제외시켜 놓고 보면, 남는 것이 문학실기 즉 실기문학이다. 실기문학은 경험주체와 서술주체의 일치여부에 따라 협의의 실기와 광의의 실기로 나눌 수 있다. 실기문학에서 누구의 손에 의해서 씌어졌느냐가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는 것은, 실기라는 것 자체가 생체험을 소재의 주요 원천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의 실기가 실기문학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

먼저 狹義의 실기에 속할 수 있는 것들로는 임란을 배경으로 한 것 중에는 유성룡의 <징비록>, 이노의 <용사일기>, 오희문의 <쇄미록>, 유진의 <임진록>, 조정의 <임란일기>, 이순신의 <난중일기>, 이정암의 <서정일록>, 유정의 <분충서난록><sup>30)</sup>, 이탁영의 <정만록>, 김용의 <운천호종일기>, 정방영의 <임진조변사적>, 정희맹의 <선양정임란일기>, 강항의 <간양록>, 정희득의 <월봉해상록>, 노인의 <금계일기>, 정경득의 <만사록>, 정호인의

29) 이에 대해서는 김세윤, 「조선후기 사찬사서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2를 참조할 것.

30) <분충서난록>은 신유한에 의해 편찬된 것이다. 신유한은 이 책을 편집하면서 유정의 행적이 담긴 기존의 서적-지봉유설, 난중잡록, 오순지 등을 참고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글의 기본 바탕이 된 것은 5대 법승인 南鵬法師가 가지고 있던 유정의 유고이다. 비록 <분충서난록>이 유정 자신에 의해 직접 엮어진 것은 아니나, '淸正齋中探情記'와 같이 상당부분이 유정이 직접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의 실기문학에 포함된다.

<정유피란기> 등을 들 수 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것 중에는 나만잡의 <병자록>, 남업의 <병자일기>, 석지형의 <남한해위록>, 남이웅의 <병자일기> 등이 있고, 궁중비사와 관계된 것으로는 혜경궁홍씨의 <한중록>이 있다. 그리고 흥경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陣中日記>, <安陵日記>, <殉節錄>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실기문학에는 봉소, 격문, 편지, 일기, 효유문, 장계, 기행문 등 다양한 문체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문학성이 강한 부분은 일기, 기행문, 편지글 등으로, 양적인 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그외의 글에서도 문학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감성보다는 이성애 호소하며 보고적이거나 공식적인 어법으로 되어 있어 문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그 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廣義의 실기는 경험주체와 서술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체험 당사자가 직접 서술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망우당선생집>, <김충장공유사>, <식성군실기>, <매현실기>, <후지당실기>, <임충민공실기>와 같이 後代人들에 의해서 전란(혹은 난)이 발생한지 상당기간이 지난 뒤 고인을 추모하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실기의 被傳者는 대개 전란에서 무공을 세웠든가 후대인들에게 모범될 인물이지만 그 저술이 없거나 산일되어 후대인들이 그의 행적을 追述하는 경우이어서 사적이 더러 과장되거나 허구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sup>31)</sup> 이런 실기는 왕명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는 18-19세기에 이르러 문중이나 향촌조직을 중심으로 간행된 것으로, '실기'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런 류의 글이라 할 수 있다.

이 범위에 해당하는 글들은 협의의 실기와는 달리 서술주체가 체험 당사자가 아니라 후대인들이기 때문에 실기문학 본연의 특징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이 글들은 체험을 진솔하게 서술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로 인물평, 장계, 격문, 추도문, 발췌된 기사문 등과 같이 공식적인 문장을 담고 있으면서 문집의 간행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적 체취가 강한 편은 아니다.

그외 <인현왕후전>, <계축일기>, <박태보전>, <신미록> 처럼 실기의 성

31) 류탁일, 「한국 옛 문집의 양태와 출판과정」, 『태야최동원선생화갑기념 국문학 논총』, 삼영사, 1983. 150쪽.

격과 소설의 성격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 작품들이 있다.<sup>32)</sup> 이들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입장에서 체험세계를 서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기문학의 본령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역사의 현장에 같이 있었던 인물이 기록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사실적 실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그 서술필법은 허구의식에 경사된 면이 적지 않다. 특히 <신미록>은 흥경래란을 배경으로 저술된 <陣中日記>, <安陵日記>, <殉節錄> 등의 글을 참조하였다는 점에서 실기가 소설화된 경우라 할 수 있다.<sup>33)</sup> 이처럼 실기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험주체와 서술주체의 일치성 여부에 따라 그 범위가 보다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

#### IV. 실기문학의 서술구조

##### 1. 체험의 포착과 문학적 진실

실기문학은 하나의 표제 아래 서로 다른 내용과 제목을 가진 글들이 다양하게 혼효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문학에 비해 구조적인 치밀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이점이 바로 서사문학과 변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실기문학의 서술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기문학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인 협의의 실기, 즉 경험주체와 서술주체가 일치되는 작품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실기문학은 사실적 체험 그 자체의 서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창조적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는 문학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실기문학에서의 '사실'이란 객관적인 현실성을 가진 존재나 현상으로, 실제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구현되었거나 가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sup>34)</sup> 즉, 사실을 소재

32) 이들 작품에 대한 장르규정은 아직도 학자에 따라 논란이 있다. 김용숙, 정은입의 경우는 실기문학이라고 보고 있고, 민영대(조선조 사실계소설 연구, 한남대 출판부, 1991)를 비롯한 일부의 학자들은 소설로 보고 있다. 이는 관점의 차이겠으나 본고는 후자의 견해에 동의한다.

33) 이들 작품간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노성미(「흥경래전승의 양상과 변이연구」, 경남대 박사논문, 1993. 12월)의 연구를 참조할 것.

로 하되 그것을 바탕으로 작가의 주관적 정서나 가치에 의해 재편집한 허구적 창조물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허구물의 경우, 설사 그것이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작가의 경험질량에 따른 상상적 대치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산문일지라도 ‘현실 그 자체의 기록을 중시하는 실기문학’과 ‘개연성에 의존하는 허구문학’과는 글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골격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은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실기문학에서 중시되는 것은 작품의 심미적 예술성보다는 소재의 현장성과 참신성 그리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작가정신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문학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르론적 고정관념이나 평가기준에 의해서 재단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산문정신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그 접근방향은 작가가 경험한 생체험이 실상 그대로 기록되면서, 작가의 개인적 감정이 얼마나 호소력있게 표현되었는나를 확인하는 것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sup>35)</sup> 실기문학은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작가의 사실적인 체험이 문학적 여과장치에 의해 굴절됨이 없이 독자들에게 실감있게 전달될 수 있을 때라야 비로소 그 자체의 의미망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실기문학은 그 시점이 1인칭의 체험자 시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술 주체는 당연히 경험주체인 작가 자신이 된다. 작품의 양과 질도 작가가 접한 생체험의 폭이 어떤 깊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체험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단순한 시간적인 양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작가가 경험한 생체험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사실적인 실제감과 정서적 일체감을 얼마만큼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문학성이 결정된다. 때문에 작가가 관찰하거나 체험한 경험의 질과 그것의 소재적 특이성,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진술하는 작가의 섬세한 문필력이 무엇보다도 중시된다 하겠다. 그 이유는 특징적인 실제 사건과 또는 사실을 가능한 한 경험 그 자체에

34) 柳基龍, 앞의 책, 16-18쪽 참조

35) 이러한 관점에 입각 실기문학의 특징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채연의 앞의 논문과, 장경남(「임란 실기문학 입진록 연구」, 숭실어문 10집, 1993)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충실하게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문학적 진실이 획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형의 아들 가련(可憐)은 나이가 여덟 살인데 주리고 목말라서 잔 소금 물을 마시고 구토 설사하여 병이 나자 적이 물 속에 던지니,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오래도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sup>36)</sup>

여자 하나를 잡으면 30-40여명이 서로 윤간하여 죽게 한다고 한다. 서책을 찢어서 더러운 것을 닦는다고 하며, 장독에다 방뇨하여 사람에게 먹도록 한다니 그 소행을 어찌 다 말로 하랴. 이런 육을 보이는데도 천벌을 내리지 않는고? 몸이 늙었음을 원망하며 통곡할 뿐이다.<sup>37)</sup>

위 글에서는 문학적인 비유나 수사를 찾을 수가 없다. 단지 생체험의 현장감만 드러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글의 내용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체험의 사실성과 감정의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비참함과 극한 상황은, 있는 그대로의 묘사만으로도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때문이다. 강항의 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적이 물에 던지니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았다.”는 표현도 사실의 기록 그 자체에 머물고 있다. 그렇지만 간결한 이러한 서술이 오히려 더 큰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은 사실 그 자체의 서술만으로도 오히려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수식은 그 표현의 문학성을 높이지는 몰라도 작가 경험의 진실성을 전달하는 데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탁영의 <정만록>에 나타나 있는 조선 부녀자들의 수난은 처참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보거나 들은 이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부녀자의 피해상은 임란 실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참상이다. 서술자에 따라서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탁영의 경우 저자의 비통한 심정이 절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드러나 있어 전쟁 참상의 비극적 단면을 실감케 한다.

이처럼 실기문학은 픽션문학에서 요구되는 논리적인 구성이나 정제된 구조와 같은 치밀성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훨씬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표현의 다양성과 수사의 화려함 또한 픽션문학에 비해 훨씬

36) 姜沆, <看羊錄>, 「涉亂事迹」, 丁酉年 9월 24일.

37) 李權英, <征蠻錄>, 1592년 7월 7일.

절제되어 있다. 실기문학은 작품외적 소재나 사건을 작품 내적 질서 위에 그대로 일치시킴으로써 문학적 진실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픽션문학과는 대조적이다.<sup>38)</sup>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기문학은 생체험의 효과적인 기술을 통해 문학적 진실에 접근하는 서술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 2. 소재 선택방식과 짜임새

실기문학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서술자’와 이야기인 ‘체험세계’, 그리고 이것들이 시간적인 계기관계에 의해 진행된다는 점에서 서사문학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 그러나 실기문학은 사실 그 자체의 역사성과 진실성이 선행되지 않고는 작품의 존립성을 얻을 수 없지만, 다른 서사문학은 소재의 사실성이 전제되지 않아도 문학의 독자성과 자립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허구지향의 서사문학에서는 전달 보고를 목적으로 한 기록 중심의 이야기를 작품 소재로 선택하더라도 인과성과 개연성에 따라 조정·재배치함으로써 새로운 시간적인 질서를 구축해낸다. 그러나 실기문학은 소재와 소재 사이의 유기적인 인과성이 결여되어 있고 시간적인 질서 또한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플롯의 단계로까지지는 나아가지 못한 사실 그 자체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실기문학은 작가가 경험한 대상만을 소재로 하여, 그 소재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지 않은 시점에서 선택되어 일기로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일기는 하루 하루를 지나면서 일상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되는 정취나 필자의 사고 등을 형식의 제약 없이 逐日記録한 것이다.<sup>39)</sup> 오희문의 피란일기 <쇄미록>

38) 문학 작품은 크게 픽션 문학과 네피션 문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픽션문학은 사실성(factuality)에의 구속 없이 상상력에 의한 창조라는 방식을 통해 진실성(reality)을 지향하는 것이고, 네피션문학은 이와 대조적으로 사실성을 전제로 진실성을 추구하는 문학이다. 이중에서도 픽션문학은 다양한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성층적인 고도로 복잡한 조직체이다. 특히 상상적문학의 경우, 이질적이고 서로 동떨어진 비연속적 요소를 하나의 유기체로 통합시킨 것이기 때문에 창작 주체에게 논리적인 통일성을 요구하게 된다. 즉 작가는 개인적 표현, 매개 수단의 인식과 개척, 실용적 목적의 결핍, 허구성 등을 통해서 독자에게 그가 현실적인 인생을 읽고 있다고 확신케하는 환상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의 마지막에,

이 뒤로는 종이도 다되어 그만 쓰기로 한다. 또 서울에 도착했으니 流離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sup>40)</sup>

란 부분이 있다. 이는 <쇄미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소재가 선택되고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그날 그날의 파편적인 소재들이 모여서 전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과 행위가 날마다 반복되어 서술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시간은 물론이요, 인물이나 사건, 지명, 공간 및 작가의 감정 등이 동일할 수가 없다. 이 모든 대상과 소재는 자연적인 질서 위에 순차적으로 변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작가는 그날 그날의 상황에 따른 사건들을 취사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기문학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나'로 표현된 1인칭 서술자의 등장과, 그 서술자의 변하지 않는 일관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체험한 것 중의 일부를 취사선택하여 한 편의 작품으로 구조화한다 하더라도 소재와 소재 사이의 유기적인 짜임새는 약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작품의 소재가 일회적인 기능만 할 뿐 반복적으로 사건을 환기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실의 나열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적인 소재들은 작가가 보고 들은 동일한 사건의 체험 기록이라는 단일한 주제 속에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모습을 더욱 다양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다.

8월 12일 왜적이 두 번째 내침한다는 소문을 듣고 호남의 인심이 흉흉하여,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두 가지 의논이 있었으나 감피를 잡지 못하였다. 나는 곧 어버이를 모시고 가숙을 거느려 지고 메고 하여 길을 떠

- 39) 그런데 '日記'라는 題名の 글이 모두 生活雜感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隨筆'이라는 용어가 원래 양식적인 의미라기 보다는 집필자세의 의미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日記'라는 용어도 遊記의 性格, 歷史記錄物的 性格, 陳中日記의 性格, 讀書記의 性格, 生活手記의 性格 등 다양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 金璧振, 「朝鮮後期 小品體 散文研究」,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1991, 89쪽.
- 40) 吳希文, <瑣尾錄>, 「辛丑日錄」, <쇄미록>은 임란 발발부터 9년 3개월간에 걸친 기록으로 그 양에 있어 임란 실기중 가장 방대한 것이다.

났다.…… 19일 靈光 大安村 앞에 이르러 의논을 달리했다. 거룻배를 하나 구해 배에 올랐다. 9월 15일 온 식구가 九崙浦에서 배에 올랐다. 16일 물의 왜병이 우리를 보고 총을 쏘았지만 배가 있는 곳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그때 戚叔 鄭燾과 族兄 절, 그리고 沈和伯과 權士偉의 두 척숙과 吳丈宏이 우리 일가족과 배에 올랐다. 17일 새벽에 배를 띄웠다. 서쪽으로 올라가기로 마음 먹었다가, 바람이 심하게 불어 임병도의 法浦 앞바다에서 배를 들렸다. 18일 載元島에 옮겨 대었으나, 풍량이 막혀 머물고 배에 오르지 못하였다.…… 27일 七山 앞바다에 이르러 갑자기 적선을 만났다.…… 왜장의 이름은 森小七郎이며, 바로 왜국의 남해도 阿波守 蜂須賀 家政의 별장이라 하였다.<sup>41)</sup>

위 글은 <월봉해상록>의 「해상일록」 앞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피랍 무렵인 정유년(1597) 8월 12에서 시작되는 부분이 간단히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고, 9월 15일부터 그 이후는 날짜별로 사건의 다소에 따라 서술의 분량이 조절되어 있다. 이 글의 서술 주체는 1인칭의 ‘나’인 체험 당사자이다. 인물로는 같은 지역의 인사인 정돈, 정절, 심화백, 권사위, 오장평과 그들을 납치한 일본인 장수 森小七郎 등이 나온다. 그런데 서술자인 1인칭 ‘나’를 제외하면 작품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도 작품의 성격에 영향을 줄만큼 반복적으로 환기되지는 않는다. 이들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단지 작가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기능만 하며, 시간은 작가 여정의 추이를 나타내줄 뿐이다. 정희득이 경험했던 공간(영광 대안촌, 구수포, 범성포, 범포, 재원도, 칠산)은 작가의 경험 추이를 지지해 주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불과하다. 작품 속의 공간이 작가 의식의 변화나 작품 구성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다. <월봉해상록>에서의 공간은 다른 소재와 마찬가지로 작가 경험의 파편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임란 배경의 동일한 소재를 갖고 있는 서사문학 특히 소설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주생전>에 등장하는 공간은 축주, 전당, 호주, 조선의 네 곳이다. 여기서의 공간은 소설의 구성과정과 그 진행을 같이 하며 도입, 전개, 절정, 결말의 분단을 결정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의 의식변화까지도 수반하고 있다. 즉, 소설에서의 공간은 작가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 있는 의식적인 공간인 것이다.<sup>42)</sup> 등장인물 또한

41) 정희득, <월봉해상록>, 「해상일록」.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작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설과 같이 성격묘사나 인물창출 같은 것이 매우 미흡하다. 실기문학에서의 등장인물은 작가가 역사현장에서 만난 단순한 개별 인간들에 불과하다. 허구적 서사문학에서처럼 등장인물간의 갈등이 새로운 사건을 유발시키고, 그 갈등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사건이 전개되지는 않는다. 등장인물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소재적인 기능 이외에는, 작품 전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기문학의 소재들은 거의가 비작위적인 것이며 우발적인 것들이다. 43) 이들은 단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시적 기능 밖에 수행하지 않는다. 허구적 서사문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시간의 역전현상이나 인물들의 반복적인 등장, 공간의 유기적인 짜임새, 사건의 복선적 기능 등 소재와 소재 사이에서의 모든 유기적인 관계가 실기문학에서는 형성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실기문학이 역사적 사실과 사건, 인물 등의 소재를 작가 체험의 추이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소재가 일회적인 것으로 밖에 기능되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의 시작과 끝도 작가의 일정한 구도 속에서 논리적인 짜임새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체험 세계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작품도 끝을 맺는 진술의 한시성을 띠고 있다.

이상의 서술구조를 통해서 생각할 때, 실기문학은 문학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덜 다듬어진 양식이지만, 당시로서는 조선조 지식인의 의식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전형적인 문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작품은 사실성을 바탕으로 진실성을 구현하려는 記事·記言의 문학적 태도 위에 자신의 생활 감정을 효과적으로 구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42) 實記文學에서의 공간은 단순한 物理的 空間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소설에서의 공간은 주인공의 의식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意識化된 空間이다. 이에 대해선 金重河(『小説의 空間性研究 試論』, 《台也 崔東元先生華甲紀念論叢》, 三英社, 546-547쪽)를 참조하고, 소설작품에서 차지하는 공간의 비중 및 시간과의 상관성과 그 기법성에 관해서는 李憲洪(『崔致遠傳의 傳奇小說的 構造』, 《睡蓮語文論叢》 9집, 釜山女大, 1982, 163-182쪽)을 참조할 것.

43) 柳基龍, 앞의 책, 26쪽.

### 3. 구성과 주제구축 양상

실기문학은 작가가 실제 경험한 체험을 편년체와 기사체의 서술방식에 따라 구성하고 있다. 편년체적 서술은 시·공간의 추이에 따라 일기형식으로 서술한 '日錄'이다. 이들 부분은 그 전개과정은 1인칭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져 있고 시·공간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날 그날의 파편적인 사건들이 소재로 구성된다. 그리고 소재로서의 일회적 사건은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통해 축적됨으로써 주제를 구축시키는 매개항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실기문학의 양과 질은 체험자의 경험 세계와 비례하기 때문에, 작품의 시작과 끝은 작가의 체험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작가는 생 체험을 통해서 관찰되고 지각된 대상만을 중심으로 서술하거나 묘사하며,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 의식까지도 표출하게 된다. 이에 비해 기사체는 편년체적 기술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주제별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로 疏, 記, 啓辭, 錄 등 일종의 보고문으로 작가의 개별 체험과 사상을 일관된 논리에 의해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칭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실기문학은 체험자 시각을 통해서 생활사의 자세한 부분의 묘사와 특수한 체험을 편년체적으로 기술하고, 편년체로서는 취급하기 어려운 내용을 기사체의 방식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 부분들은 별개의 다른 내용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이 모여서 전체의 의미를 구축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한편의 실기를 구성하고 있다. 주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각각의 독립된 글들은 그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험의 실상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다. 즉, 실기문학에는 다양한 기술방식이 혼용되어 있으면서도, 그 각각의 의미가 모여 동일한 주제를 구축하는 음니버스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sup>44)</sup> 그 이유는 글이 쓰여진 정황으로 볼 때 '日錄'이 꾸준히 씌

44) 본고의 이러한 관점은 실기의 개별 작품들이 완결된 형식미를 갖추고 있는 텍스트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한 편의 실기 속에 수록되어 있는 여러 편의 글들이 애초부터 작가의 의도적인 구상에 의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볼 때는 독자성을 띤 한 권의 텍스트

어지고, 필요에 따라 중간 중간에 疏나 啓辭 등의 글이 섞여졌기 때문인 것 같다.

이처럼 실기문학의 옴니버스 구성은 일기형식의 계기적 서술을 통해 생활 체험과 정감을 표현하고, 그 중 특별히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체로 따로 독립해서 초점화시킴으로써 보고형식의 목적성도 아울러 충족시키는 주제구축 양상을 보여준다.

#### 4. 詩文의 혼효

실기문학은 일기, 보고문 등의 산문과 시가 혼효되어 있으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구조를 띤다. 이때 산문이 어떤 사실이나 정보의 설명, 혹은 정황을 진술하는 기능을 한다면, 시는 정황에 대한 작가의 개인적 감회를 담고 있다. 특히 특정한 사건에 대한 개인적 정감을 토로하거나 처지를 한탄, 혹은 이산의 서러움을 나타내고자 할 때 시로서 처리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실기문학에 시가 혼효되어 있는 현상은 전황이 소강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여가를 이용하여 산문으로 표현하지 못한 심회를 회상하듯 정리하는 차원에서 섞여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의 모든 실기문학에 시와 산문이 혼효되어 있는 것은 시가 당시 지식인들의 감정표현에 있어 주로 사용되던 보편적 문예양식이었기 때문이다.

실기문학 중에서 특히 포로실기에 한시가 많이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시를 지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데도 이유가 있고, 자신의 능력을 일본인들에게 과시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고자 한데 더 큰 이유가 있었다.<sup>45)</sup> 강항과 같은 이는 식자층에 속하는 유자이다. 때문에 그가 자신의 신

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45) 포로실기문학의 작가들이 일본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받은 대우나 생활상은 그들의 작품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중 정경득의 <만사록>의 다음과 같은 귀절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생활적 여유를 짐작할 수 있다. “中源 및 子平과 바둑을 두며 소일했다. 포로된 사람들은 모두 왜도들의 집에서 복역을 하는데 우리들은 다행히 이를 면했다. 왜인 두목들은 항상 우리들을 조선 가객이라 부른다”(1598. 2. 11일.)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포로들 중 학식과 한시의 창작에 능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상당한 예우를 받았다.

분에 어울리는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학식과 문학적 재능이었을 것이다. 그를 억류하고 있는 번주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일본 지배층은 작시능력과 학문적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존중했는데, 이 때문에 강항은 다른 조선 포로와는 달리 상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sup>46)</sup> 정회득의 <월봉해상록>에 작시능력의 중요성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뒷받침 한다.

실기문학에 나타나고 있는 시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 형태는 1) 작가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충격이나 감흥을 적은 서정시 2) 다른 사람의 시에 화답하는 형식의 次韻詩 3) 작가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미 예전에 동일한 체험을 한 사람이 적은 시를 원용하여 자기의 정감을 대신하고자 한 인용시 4) 작가가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그들에게서 받은 답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실기문학에 나오는 시들은 시 자체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는 그 맛을 상실하기 쉽다. 반드시 산문과의 상호 관련성 아래서 그 의미전달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인 한시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이 실기문학에 삽입되어 있는 시들의 한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실기문학에 나타난 정조는 크게 '혈육에 대한 그리움'과 '연군', '적에 대한 적개심', '삶에 대한 회의' 등으로 나타났다. 혈육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때문이다. 연군의 정조는 작가들의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이는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속죄적인 의미와 함께 그들의 주자학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관념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적에 대한 적개심과 삶에 대한

46) 일본에서 한문에 능통하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승려들과 일부의 식자층을 제외하고는 그리 흔한 편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선의 포로중 학식과 문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에서 충족하지 못한 지적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필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시의 창작이 자연스레 이루어졌다. 현존 작품에 唱和詩의 형식으로 남아 있는 시들 중 상당부분이 이들의 시들로 메워져 있다. 강항을 비롯한 포로 실기문학의 저자들은 그들의 시적 재능을 높이 싸 접근해 오던 일본인들 통해서 오히려 일본의 정세나 지형 등을 파악하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회의는 전쟁이 가져다 주는 비참한 참상에 대한 인간적인 분노와 실존에 대한 물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 정조는 주로 사물을 통한 정경화나 시에 의해서 표출되었다. 사물을 이용한 정경화의 방식은 작가의 입란 체험을 우회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의미의 전달을 훨씬 명료하게 하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그 내용은 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이거나, 빠른 시간 안에 전쟁이 끝나기를 희망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또한 이들 시들은 작가의 감정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분노로 극한 상태에 처했을 때, 시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자 한 의도에서 씌어진 것도 적지 않다. 실기문학에서의 산문은 사실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는 작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작가의 감정이 격앙되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러한 격앙된 감정은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내용을 詩化하여 감정을 순화시키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게 하는 기능을 시가 맡고 있다.

그러나 실기문학의 시들은 입란 체험을 묘사하고 있는 權輿과 許筠의 시들과 비교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허균과 권필의 시는 전쟁의 참혹성에 대한 객관적 묘사와 정확한 현실인식을 통해, 전쟁이 가져다주는 인간성 상실의 실상을 정확하게 묘사해 내고 있다. 그들의 시는 인간 실존에 대한 끊임 없는 회의를 통해서 삶의 진실한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이에 비해 실기문학의 시들은 많은 전쟁의 참상이나 인간적인 고뇌 등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현실을 폭넓게 보지 못하고, 단지 시를 현실도피의 관념적 유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듯한 느낌만을 준다.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다분히 고답적인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자신들의 애환을 달래주는 현실위무의 수준에 머무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 IV. 실기의 자리매김

실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만 하더라도 실기는 역

사의 보조자료로 취급되어 우리문학사에서 소홀히 취급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개별 작품이 갖는 우수성은 별개로 논하더라도 우리문학사의 지평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이미 조동일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실기는 전쟁이나 난과 같은 민족수난의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상적 문학에 비해 서술상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구성의 치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하더라도 실기만이 갖는 현장감 및 가공의 세계보다 더 극적인 소재의 참신성 등은 가치 있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실기가 임·병 양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전쟁문학이 흔치 않은 우리 문학사를 고려할 때 더욱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실기문학은 그것 자체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허구지향의 서사문학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실기문학은 전 또는 소설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데, 실기문학에서 보여주는 세계가 소설의 주요 재료로 활용되어 새로운 공간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실기의 허구화 과정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설의 경우 흥경래란을 배경으로 씌어진 <진중일기>와 <신미록>, 신문관본 <흥경래실기>등에서 실기문학이 바로 소설화의 전거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 실기와 같이 교술적 성격을 띤 전의 경우도 실기문학이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전의 허구화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임상원이 지은 <동래양부하전>같은 작품에서 <간양록>이 작자의 허구의식을 북돋아주는 자료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전의 소설화에도 실기문학이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

문예적인면 이외에도 실기문학이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찬사서나 역사서의 실증적 자료로 활용되어 조선후기의 대외인식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실기문학은 역사서로서의 성격과 문예물로서의 성격을 두루 포괄하면서 조선 후기의 각종 저술과 문학작품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기문학은 그 자체로서의 문학적 가치는 물론 실증적인 자료로서의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자리매김도 있어야 할 것이다.